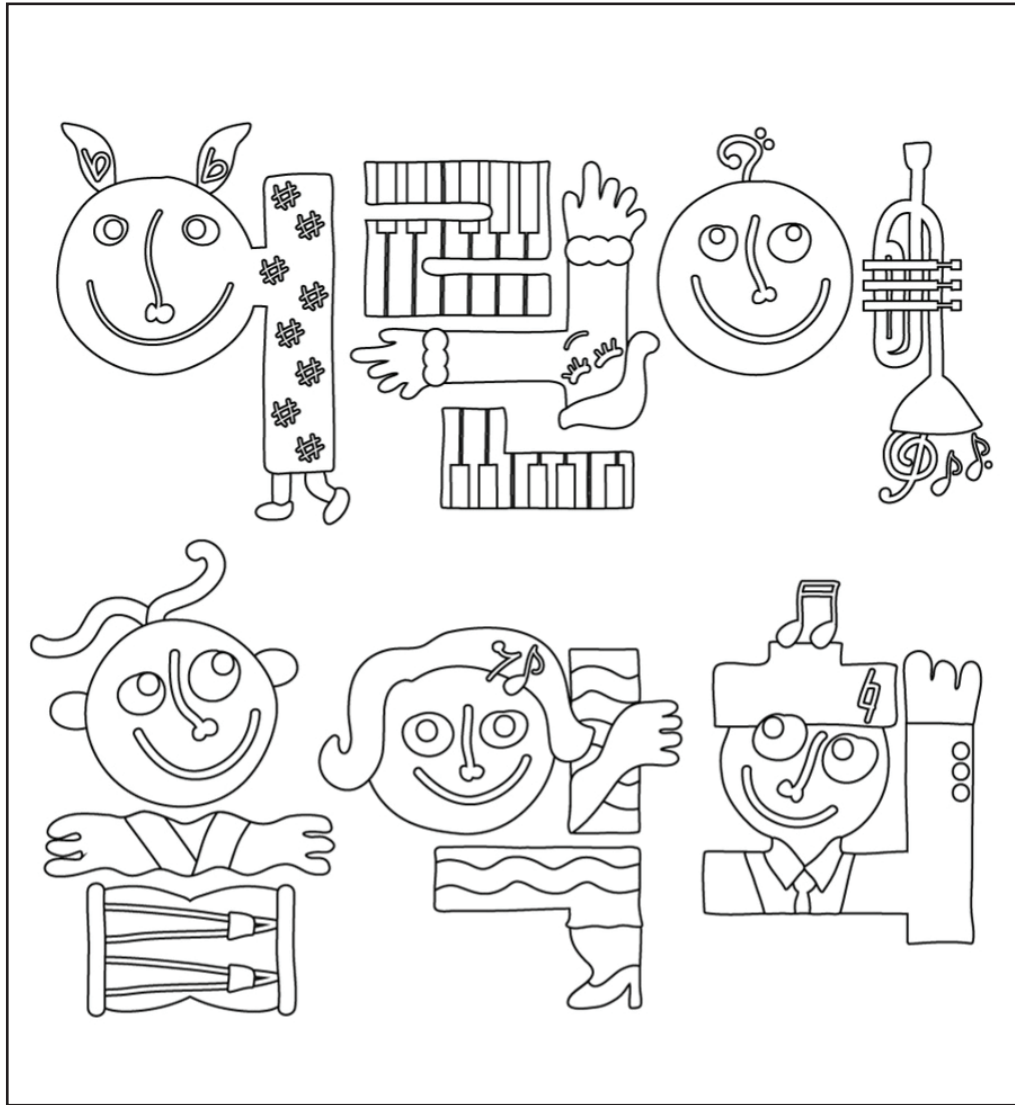


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마음껏 색칠해 보세요~



악기 속으로 - 4

뜯고 때리고, 부드럽고 세게



12월 4일(토) 14:00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동두천)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 최현영

음악감독 : 박찬이

진행 : Johann Sebastian Pyobach

총감독 : 표문송 관장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라는 악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보통 '피아노의 전신'으로 불리는 두 악기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답니다.

하프시코드는 현을 '뜯어서' 소리내는 악기라서 피아노와는 아예

소리 구조나 원리가 달라요. 반면에 포르테피아노는 현을 '때려서' 소리를 내는

타현악기이고, 현대 피아노의 조상이 되는 악기랍니다.

오늘은 두 악기를 비교해 들어보면서, 건반악기의 역사를 다양한 국가의

위대한 작곡가들과 함께 훑어봅니다.



[하프시코드]



[포르테피아노]

- 존 볼 John Bull (1562-1628)

룸리 경을 위한 파반 & 갤리어드

"Pavan & Galliard of My Lord Lumley"

당대 영국 문화예술의 후원자였던 룸리 경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된 곡. 영국 버지널 악파를 대표하는 존 볼의 곡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춤곡과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을 느껴봅니다.

- 지롤라모 프레스코발디 Girolamo Frescobaldi (1583-1643)

라 모니카 주제에 의한 파르티타

"Partite sopra La Monica"

16-17세기 전유럽에서 유명했던 '라 모니카' 선율을 토대로 한 아름다운 변주곡.
당시 유행하던 민중들의 구슬픈 선율이 하프시코드 건반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됩니다.

- 장 필리프 라모 Jean-Philippe Rameau (1683-1764)

암탉

"La Poule"

표제적이고 재미있는 곡도 많이 쓴 프랑스 클라브생 악파의 대가 라모.
암탉의 울음소리와 모이를 쫓는 듯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사랑하는 형과의 작별에 부치는 카프리치오 B $\flat$ 장조

"Capriccio sopra la lontananza del suo fratello dilettissimo
in B-flat Major, BWV 992"

19살 바흐가 3살 위의 형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작곡한 곡.
형과의 이별과 당시 상황을 다양한 기법과 선율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주를 들으며 형제자매의 소중함과 우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 Johann Christian Bach (1735-1782)

건반 소나타 5번 A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Keyboard Sonata in A Major, Op. 17 No. 5, I. Allegro"

대 바흐의 막내아들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는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며 바로크 시대와
고전 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모차르트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중 1악장 알레그로

"Piano Sonata No. 16 in C Major, K. 545, I. Allegro"

피아노를 치는 어린이들에게도 무척 친숙한 소나타.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모차르트가 특별히 사랑했던 슈타인 피아노를 통해,
그의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생생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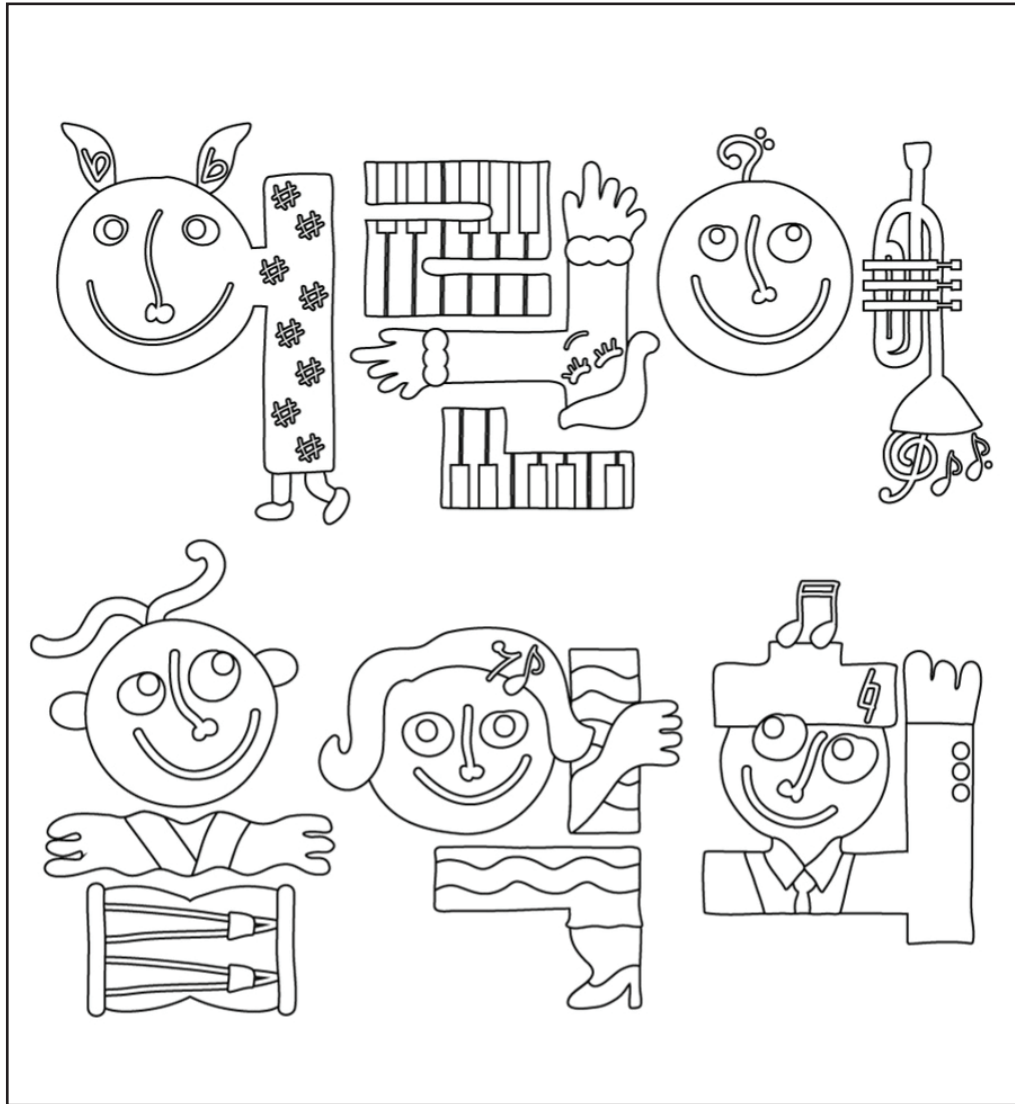
-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피아노 소나타 14번 C $\sharp$ 단조 Op.27-2, "월광" 중 3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Sonata No. 14 in C Sharp Minor Op.27-2, III. Presto agitato"

폭풍같은 감정 표출과 정열적으로 상행하는 동기로 유명한 악장.
포르테피아노의 음색이 현대 피아노와는 어떻게 다른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도록 마음껏 색칠해 보세요~



악기 속으로 - 5 따뜻한 木(목)소리의 합창



12월 5일(일) 11:30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동두천)

리코더, 트라베르소 : 김수진

바로크 오보에 : 신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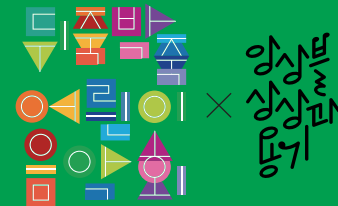
바로크 바순 : 김혜민

하프시코드 : 아렌트 흐로스펠트

음악감독 : 박찬이

진행 : Johann Sebastian Pyobach

총감독 : 표문송 관장



[목관악기]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목관악기'입니다.
목관악기란 나무로 만든 관 모양의 악기를 통칭하죠.
보통 목관악기의 소리는 우리에게 따스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데요.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인 '나무'와
사람의 '목'에서 흘러나오는 숨결로 소리가 나기 때문이죠.
오늘 공연에서는 리코더, 트라베르소 플루트,
바로크 오보에, 바로크 바순을 통해 목관악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껴봅니다.

- 자크 마르탱 오토테르 Jacques-Martin Hotteterre (1674-1763)
트라베르소를 위한 첫 번째 곡집 중 프렐류드, 알르망드 '위엄있는'
"Premier Livre de Pièces pour la Flûte-traversière (Paris 1715)"
- Prélude - Allemande "La Royale"
오토테르의 트라베르소 플루트를 위한 곡집에 수록된 프렐류드와 알르망드로,
특히 알르망드는 왕족이나 귀족의 위엄있는 모습과 뽐족한 콧수염을 연상시킵니다.

- 게오르크 필리프 텔레만 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소나티나 A단조 중 1, 2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Sonatina Quinta in A Minor, TWV 41:a4, I . Andante, II . Allegro"
텔레만은 바흐와 동시대 작곡가로서, 목관악기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오늘 들을 소나티나는 바로크 바순의 평화로운 음색과 무척 어울리는 곡입니다.

- 안토니오 비발디 Antonio Vivaldi (1678-1741)
소나타 A단조 중 1악장 라르고
"Sonata a due in A minor, RV 86, I . Largo"
비발디는 베네치아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구호소/고아원)를 위해 여러 곡을 작곡했고,
고아 소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전 유럽을 통해서 유명했습니다.
리코더와 바순을 연주하는 소녀들을 상상하며 이 소나타를 들어봅시다.

- 크리스토프 샤프라트 Christoph Schaffrath (1709-1763)
오보에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듀에토 B♭장조 중 1악장 라르고
"Duetto for Oboe and Harpsichord in B-flat Major, I . Largo"
샤프라트는 바로크와 고전 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작곡가.
그의 듀에토는 오보에의 따스함과 하프시코드의 생기발랄함을 잘 느껴볼 수 있는 곡입니다.

- 카를 필리프 에마누엘 바흐 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
오보에 소나타 G단조 중 3악장 비바체
"Oboe Sonata in G minor, Wq. 135, III. Vivace"
대 바흐의 차남 에마누엘 바흐는 인간의 다양한 감성을 표현하는 음악을 다수 남겼습니다.
들어볼 소나타 3악장은 다중인격같은 감정 변화를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을 위한 디베르티멘토 B♭장조 중 알레그로
"Divertimento for Oboe, Clarinet and Bassoon in B flat major, K. 439b I . Allegro"
디베르티멘토는 일종의 오락, 여흥음악으로, 18세기 귀족의 연회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연주되었습니다. 이 곡은 목관악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엔니오 모리꼬네 Ennio Morricone (1928-2020)
가브리엘의 오보에
"Gabriel's Oboe"
20세기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영화 '미션'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2020년 세상을 떠난 모리꼬네를 추모하면서 이 서정적인 선율을 들어봅시다.

- 장 밥티스트 뤼리 Jean-Baptiste Lully (1632-1687)
왕을 위한 실내 트리오 중 C장조 샤콘느
"Trios de la chambre du Roi, LWV 35: No. 47, Chaconne in C Major"
샤콘느는 옛 춤곡의 하나로서, 주로 곡집 마지막이나 공연 끝곡으로 선호됩니다.
목관악기 공연을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대가 뤼리 샤콘느와 함께 마무리해 봅시다.